

#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 제 15 장



~“얼다

" 일어나세요, 당장!" 빨래하는 여자가 라자루스에게 몸을 굽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소리쳤다. "일어나세요, 라자루스 도련님!" 라자루스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 배를 움켜쥐었고, 자신도 모르게 빨래하는 여자의 손까지 움켜잡았다. 빨래하는 여자는 손을 빼내며 그를 꾸짖었다. "이런 꼴 좀 봐! 주인님을 뵈기도 전에 새 셔츠에 뭍 묻히다니!"

나사로는 몸을 일으켜 포도주 얼룩이 진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곧바로 머리를 움켜쥐고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맙소사, 모든 게 돌고 도는구나."

"안 돼요!" 세탁부가 쏘아붙였다. "셔츠 내놔! 나리께서 곧 오실 거야. 어서 일어나!"

라자로는 신음하며 힘겹게 일어서더니 벽에 털썩 기대앉았다. 그는 마치 방을 새롭게 살피보려는 듯 주위를 경계하며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눈을 비비고 콧등을 꼬집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디노 신부님은 술의 해로운 면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악한 일에 좋은 면이 어디 있겠어요?" 여자는 불평하며 나사로를 벽에서 끌어내 셔츠를 움켜잡고 탁자 쪽으로 끌고 갔다. "날아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당신들은 다 똑같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는 나사로를 빙글빙글 돌려 멈춰 세웠다.

"남자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물을 주고, 다시 씻어라." 그녀는 그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며 두덜거렸다. 라자로는 다시 한번 움찔하며 머리를 감싸쥐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팔을 찰싹 때렸다. "가만히 있어. 시간이 얼마 없어."

그는 한숨을 쉬고 돌아서서 텅 빈 탁자와 그 위에 놓인 새 촛대 하나,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방을 살펴보았다. 주변에 음식물이나 흘린 자국 하나 없는 것을 확인하며 그는 구석을 바라보았다. "쥐는 어디 있지?"

"쥐요? 무슨 쥐요?"

"바로 저기, 방 구석에 있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너 아직 취했잖아." 그녀는 툭툭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음식 말인가요?"

"오늘 아침 당신이 코골면서 자는 동안 그걸 빼냈어요." 그녀는 그의 셔츠 밖으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게다가 주인님 음식의 절반을 바닥에 쏟았잖아요. 주인님께서 베풀어주신 친절한 환대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건 와인 때문이었어.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설교하듯 말했다. "그런 헛소리는 전에도 많이 들어봤어. 술 탓이지, 네 잘못된 절대 아니야." 그녀는 그의 블라우스를 벗겨 험령하게 만든 다음, 셔츠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보랏빛으로 변한 상태를 살폈다.

라자루스는 날개를 다시 정리하고 머리를 굽적였다. "달시쿠르 경, 그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그녀는 쏘아붙이듯 말하며 몸을 돌려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럴 운명이었지." 하지만 당신의 비참한 사정을 알게 되자, 그는 당신에게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말이죠."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셔츠를 팔에 걸치고 그에게 소리쳤다. "손님이 그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분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시고 와인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비난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세탁부는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나갔다.

라자루스가 탁자를 돌아 벤치에 앉으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건장한 경비병 세 명이 방으로 들어와 벽에 바짝 붙었다. 그 뒤를 이어 검은 머리에 술이 적은 수염을 기른 젊은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갑자기 멈춰 섰고, 그의 연록색 눈이 곧바로 라자루스에게 닿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거의 소년 같은 모습이었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노련한 군인의 위엄을 풍기는 나머지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망토 단추를 풀어 경비병의 준비된 팔에 걸쳐주었다. 그런 다음 더블 브레스트 조끼를 고쳐 입고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라자루스에게 다가갔다. "라자루스 고구 씨로 들리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랑그네 백작이자 이 땅의 최고위 영주인 세리스 달시쿠르입니다." 그는 탁자를 돌아 라자루스 맞은편에 섰다. "이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라자로의 상반신을 두 손으로 바라보며 분명한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드디어 만났군.” 이라고 말했다.

나사로는 깊고 오래도록 절하며 경건하게 대답했다. "주님, 영광은 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일어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즐거운 듯이 말했다.

라자로의 일어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귀족을 발견했다. 그는 남자의 옷 아래에서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조끼가 잠시 벌어지면서 칼집에 꽂힌 단검의 손잡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달시쿠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덧붙였다.

당신이 제 감시 하에 있는 동안 받은 학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을 겁니다. 제 부하들은 용감했고, 그중 일부는 당신을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무리가 모일 것을 예상했다더라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파견했을 겁니다."

라자로의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달시쿠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탁자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전하시니, 제 군대와 교황청, 특히 이 지역의 신성한 권위가 언제든지 당신의 요청에 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모든 것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옷도, 연회도, 그리고 와인도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라자로가 주장했다. “이렇게 큰 식탁에 차려진 음식도, 이렇게 멋진 옷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포도주를 쏟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균형을 잃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영주는 손을 흔들며 그를 내보내면서 안심시키듯 말했다. "최근에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 너무 밝은 블라우스라 얼룩 하나 가리기 힘들었어."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아! 걱정 마. 지금쯤이면 하녀가 다른 블라우스를 가져올 거야. 훨씬 더 어두운 색, 마치 황혼처럼 짙은 색으로 말이지." 그는 한숨을 쉬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지금 블라우스도 안 입고 반쯤 벗은 상태이니, 네 가장 아름다운 부분, 특히 날개를 보여주겠니?" 그는 그에게 돌아서라고 손짓했다. "날개를 펼쳐 보아라."

라자루스는 순종적으로 몸을 돌려 병사들의 차가운 시선과 달시쿠르의 초록빛 눈빛을 마주했다. 달시쿠르는 손뼉을 한 번 치고는 깍지 낀 손가락을 턱에 댔다. "정말 놀랍군. 자네 날개가 참 크군, 라자루스. 참으로 경이롭군." 그는 탁자가 놓인 벤치를 가리키며 다가갔다. "자, 앉으시오."

나사로가 식탁에 앉자, 그 남자는 그에게 바짝 다가와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아" 하고만 말했다.

라자루스는 그 거친 몸짓에 순종하여 달시쿠르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다.

영주는 꺾꺾 웃으며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쳤다. "이빨이 참 크구나! 정말 놀랍군!" 그는 몸을 기울여 라자로의 귀를 살피보며 귓불을 움켜쥐었다. "귀도 아주 예리하겠군, 그렇지?"

"예, 주님." 라자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의 남성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달시쿠르는 기쁨을 감추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특별한 일을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처럼 재능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무슨 작업인가요?"

귀족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탁자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두드렸다. "아마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나눠주시겠어요?" 라자루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 형은 길다르 달시 쿠르 경, 전 랑그네 백작이었습니다. 형의 성은 여기서 서쪽으로 수리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형은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수님도 그 직후 출산 중 사망하여 왕위를 계승할 만한 후계자가 없었고, 갓난아기 만 살아남았습니다. 길다르 형은 다른 불행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예상하고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그러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때까지 제가 재산 관리를 맡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딸이라면, 제가 그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적절한 신분의 남자와 결혼시킨 후야 재산을 두 사람에게 물려주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서하고 기록된 법률에 따라, 저는 평생 동안 그의 명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죽으면 그 딸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딸은 제 조카인 엔도라 달시쿠르이며, 아직 감정과 이성, 선과 악을 구분할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녀는 그 후로 내 눈 밖에 나서서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마녀가 되어, 터무니없이 아버지의 모든 영지, 즉 길다르의 영지와 내 영지를 모두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녀는 교활한 수법으로 보르봉 백작 프리드리히 위공 경의 손을 잡았는데, 술주정뱅이 도살자 위공 보다는 돼지가 훨씬 나은 신붓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위공을 설득하여 내 동생의 최종 판결에 이익을 제기하게 했고, 그는

그는 약탈을 일삼으며 길다르의 땅에서 밭을 갈던 우리 백성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왕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왕실 재판관은 교구의 대주교를 소집하여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휴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휴전은 그 휴전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다르의 성을 포위하고,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두 죽였다.

"아이들 말이야!" 달시쿠르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

나사로는 깜짝 놀랐다.

달시쿠르는 주먹을 풀고 두 손가락으로 눈을 비볐다. "제 분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아내이자 친절한 분인 "달시쿠르 부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린 세 남동생은 휴곤이 길다르 성을 포위했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유해를 제 병사들과 농민들의 시신과 함께 불태웠습니다. 이제 저는 엔도라가 조의를 표하며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휴곤이 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성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시 쿠르 부인과 그녀의 형제들은 2주 동안 실종 상태입니다.

달시쿠르는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걸어가 팔짱을 끼고 돌담에 등을 기댔다. 그는 라자루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근에 엔도라와 휴건 사이에 아주 다른 관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휴건은 길다르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동안 엔도라를 따로 감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는 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엔도라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뿐입니다. 제가 죽고 엔도라도 죽으면, 그는 제 마지막 명령에 항의하고 아버지의 모든 영지를 차지하려 할 겁니다. 저는 그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부하들에게 제 성을 공격해서 살아남아 증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겠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술 취한 도살자가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달시쿠르는 테이블로 다가가 앉아 라자루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로 여기서 당신은 제게 중대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 남녀노소가 당신의 날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자루스. 기독교인 조종사로서, 저는 당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정의롭고 의로운 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라자로는 몸을 움찔거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달시쿠르는 경비병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기억해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경비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달시쿠르는 다시 라자루스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탁자에 몸을 숙이고 마치 보이지 않는 지도를 훑는 듯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움직였다. "밤이 되면 길다르의 성으로 날아가 남쪽 탑의 가운데 창문으로 들어가라. 그 창문은 위층 복도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계단으로 통한다. 복도는 성의 주요 침실로 바로 연결된다." 왼쪽에는 휴곤의 방이 있고, 오른쪽에는 엔도라의 방이 있다. 휴곤의 포로인 엔도라의 방은 밖에서 잠겨 있고, 복도 안에는 경비병이 들어올 수 없다."

라자로는 몸을 뒤로 젖히고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달시쿠르는 손을 흔들며 진정시키며 말했다.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휴곤은 내부 경비병을 계단 아래쪽에만 배치해 놓았고, 그들은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더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십시오. 게다가, 당신은 경비병이 필요 없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성 뒤편에서 날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의 군대는 성의 앞과 측면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의 눈은 하늘이 아닌 땅을 감시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눈치나 소문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달시쿠르는 테이블에서 몸을 기울여 라자로에게 두 손을 내밀며 미소지었다. “보십니까? 쉬지 않고 반나절 동안 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라자로, 당신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우리 백성을 진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주군,” 라자루스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제 능력을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반나절 동안 날 수 있지만, 날면서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어디든 데려가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달시쿠르는 단검을 칼집에서 빼내 탁자에 꽂았다. “이게 너무 무거운 짐입니까?”

라자루스는 검은 손잡이가 달린 칼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러면 엔도라를 구해달라는 부탁은 안 한다는 거군?”

그는 고개를 들어 달시쿠르가 고개를 저으며 “라자로, 네가 그녀를 구할 수는 없소.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은총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소.”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세워진 칼자루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것만 있으면 되소. 깃털처럼 가볍고 매의 눈처럼 날카롭소. 가져가시오.”

“주님, 저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사로가 반박했다.

“안 돼. 힘만으로는 안 돼. 휴곤은 덩치가 큰 사람이야. 자, 이제 모든 걸 확실히 챙겨 가도록 해.” 달시쿠르는 라자루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윙크했다.

“덩치가 크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늘 그렇듯, 그는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을 것이다. 발소리에도 깨어나지 않을 테니,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숨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단검은 그의 곁에 남겨두어 부하들이 내 칼에 죽은 그를 발견 하게 하라. 그런 다음 같은 탑 창문에서 나와 내게로 날아오너라.”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사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주군이시여, 성 밖에 있는 주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정말 거대했습니다.”

휴곤 경이 성 방어에 저렇게 많은 병력을 배치한다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면 피를 흘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달시쿠르는 고개를 저었다. “성문 앞에 모인 것은 내 군대가 아니라, 질서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폭도들이었다. 그 소식이 온 지방에 퍼지자 그들은 자네를 찾아온 것이네. 사실, 내 충성스러운 군대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대부분은 성 안에 머물러 있네. 그리고 나와는 달리, 휴곤은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있지. 자네가 본 폭도들보다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네. 종합적으로 말해서, 그가 공격해 온다면 나는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네.”

성 바깥 마을이 가장 먼저 함락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늘 그렇듯, 이번에는 살려줄 것이다.

생명은 없다."

라자로는 탁자를 훑어보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위험에서 벗어난 것처럼, 당신도 마을 사람들과 군사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나사로," 그가 끼어들었다. "나는 모세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은 먼 옛날의 땅도 아니다. 나는 왕의 신하이자 종일 뿐이다. 그저 영주일 뿐이고, 이곳은 내 땅이며, 이곳 백성은 내 것이다.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조상들의 그늘 아래 묻힐 것이다.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다. 만약 내가 백성들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휴전이 그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의 손에 죽은 아버지, 형제, 아들들의 무덤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마을 사람이나 군인이나 가리지 않고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원망할 수 없다."

그는 벽 너머를 응시하며 남은 선택의 여지가 무엇인지 가능했다. "나리, 백성이 그렇게 적으시다면 왜 백성이 많았을 때와 똑같은 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땅의 일부를 그에게 주시으로써 화해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교를 보내 화해를 주선하여 엔도라를 풀어주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게 말입니다."

"휴곤과는 흥정할 수 없어. 그는 내 모든 땅과 내 목숨까지 원하고, 그 외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야. 제정신이 아니군. 게다가 주교는 도망쳐 버려서 내게 남은 건 날개 달린 남자와 단검 하나뿐이야."

"도망쳤다고요? 왜 도망치셨습니까?"

달시쿠르는 숨을 들이쉬고 통명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눈을 굴리고 손가락을 깎지 끼고는 거의 마지못해 설명했다. "글쎄요, 제가 그에게 다른 종류의 합의를 마련하라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비공식적인 심문이 포함된 합의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커져가는 의심을 잠재우고 제 백성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시쿠르는 벽에 기대선 병사들을 엄하게 바라보았고, 병사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라자로가 물었다. "그 종교재판은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그분과 서기관이 함께 했던 것이죠?"

달시쿠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백성을 위해,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 그저 날아다니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선포 할 교회의 대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성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동안, 그리고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경호를 받는 와중에도, 그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할 시간을 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까?"

라자로는 시선을 돌렸다.

달시쿠르는 말을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비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라자로는 얼굴을 찌푸렸다. "존경하는 분께서 저를 화형시키려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저를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잖아요. 서기관만 다른 말을 했을 뿐인데."

"괜찮다. 그들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평범한 기독교인 비행사가 있는 것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 그는 몸을 돌려 말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경비병들이 그들에게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예, 나리."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저를 악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자로가 그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재빨리 돌리며 대답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뿐입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리. 제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달시쿠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제 병사 중 한 명이 당신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당신이 음 " 어찌면 당신은 악마가 사로잡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기억은 " 자네의 모습은 적어도 아주 다채로웠네. 그가 내게 자네를 데려오라고 시켰을 때, 자네는 내 부하들 중 가장 키 큰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 용처럼 거대한 날개를 달고, 소도 잡아먹을 만큼 큰 이빨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고 했네. 하지만 그건 허황된 소리였지. 자네가 잠깐 머물렀던 동안 내가 알게 된 것처럼, 헛소리였네." 그는 라자로에게 손을 얹으며 꺾꺾 웃었다. "자네를 보아라. 자네는 악마도 아니고, 어떤 악마도 아니네. 그저 날아다니는 사람일 뿐이군. "

나사로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저를 악마로 몰아세우려고 데려왔다면, 왜 저를 당신들의 집에 들였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달시쿠르는 갑자기 일어서서 두 손을 등 뒤로 깎지 끼고 방을 서성거렸다.

나사로를 주시하고 있던 그는 갑자기 멈춰 서서 발뒤꿈치를 돌려 나사로를 완전히 마주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온갖 불경건한 것들을 불러들이겠습니까?"

악마 그 자체를 그의 집까지 불러들이겠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벽에 기대앉아 라자로를 칭찬했다. "당신은 대화의 기술에 매우 능숙하고 쓸데없는 말에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는군요. 제 생각에는 당신은 담론과 논쟁에 있어서 주교보다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좀 더 진지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제게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알현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 으니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만약 당신이 내 병사들의 주장대로 악마라면, 당신은 나에게 일종의 계약을 제안하고, 내가 이용할 수 없는 선택권을 줄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자로는 점점 불안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어떤 종류의, 음, 말씀해 주 시겠어요? 어떤 종류의 계약 말씀이신가요?"

"물론, 내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협정이라면, 내 목숨을 바치는 대가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

달시쿠르는 라자루스 맞은편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나사로는 목을 가다듬고 엄숙하게 말했다. "주님, 악마가 당신의 목숨뿐 아니라 영혼 까지도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휴곤을 물리치고 그와 같은 학살자들로부터 제 땅과 백성을 영원히 지켜준다면 제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그는 활짝 웃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악마가 아니라, 휴곤이라는 악한 세력의 확산으로부터 우리 동료 기독교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날개 달린 기독교인이시니까요!" 그는 천장을 향해 주먹을 흔들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악마 휴곤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제 선량한 백성을 그의 악행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리." 그들은 경건하게 대답했다.

라자루스는 이를 악물고 잠시 눈을 감고 그 순간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군요."

달시쿠르는 입술을 오므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 의와 경건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험에 대해 당신이 우려를 갖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딸랑거리는 지갑을 꺼냈다.

"저 역시 후한 보상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갑을 흔들었다. "제노바 금화 서른세 닢이면 그런 걱정은 좀 덜어지겠죠?" 그는 지갑 끈을 풀고 무거운 금화를 그들 사이의 탁자 위에 쏟아붓고는 덧붙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만큼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저는 명예로운 사람이고 제 말은 진실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라자루스에게 몸을 기울여 물었다. "자, 단 하룻밤의 일로 평생의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시쿠르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라자루스의 대답을 기다렸다.

라자루스는 끝이 탁자에 박힌 채 아래로 향한 단검과, 단검의 긴 그림자 아래 놓인, 부분적으로 반짝이는 금 더미 사이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모든 것을 물물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나리."

그는 그를 돌아보며 당황한 듯 두 손을 들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가까이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한숨을 쉬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님. 제 판단으로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달시쿠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턱을 굳게 다물고 동전을 지갑에 다시 넣었다. 끈을 단단히 조이고 지갑을 조끼 아래로 밀어 넣은 후, 탁자 위에 손가락을 짚지 못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짧은 침묵을 깨고 물었다. "나사로야, 세 선지자와 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자루스가 인정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는 자리에 좀 더 편안하게 앉으며 말했다. 그는 마치 아득한 곳을 응시하듯 라자루스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 "일은 이렇게 됐어요 —"

옛날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은사를 받은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형은 눈이 멀었지만 청력이 매우 뛰어나 멀리서도 악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형은 예지력이 탁월하여 모든 가능성을 내다보고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막내 형은 말이 적었지만 천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형은 훌륭한 잔치를 준비했고, 그 이후로 막내가 그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기에, 그들은 형을 데리러 길을 나섰다. 근처 마을로 향하던 중, 두 마을 사이의 유일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던 눈먼 형이 멈춰 서서 경고했다. "다음 언덕 꼭대기에서 악의 기운이 느껴져. 뱀이 숨어 기다리고 있다."

둘째 형이 길을 살펴보고는 "맞아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숲 속에 구불구불한 길이 보이네요. 그 길은 우리를 형제의 마을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맏이는 불평하며 말했다. "넓은 숲은 좁고 곧은 길처럼 낯설지 않소. 어쩌면 계속 나아가다가 뱀이 덮치기 전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뱀이 걱정된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앞을 볼 수 없으니, 당신들이 뱀을 잡는 동안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소."

마찬가지로 뱀을 두려워한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리한 감각을 주셔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굳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당신은 눈이 멀었으니, 제가 피하는 동안 뱀이 당신을 물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며 뱀을 완전히 피하기로 하고, 마을로 가는 길에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잔치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마을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고,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뱀이 튀어 나와 막내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두 형은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후, 각자는 동생의 불행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형이 말형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뱀이 길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오는 길에 뱀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동생이 뱀에 걸렸습니다!"

말형이 둘째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희는 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네가 내가 부탁했을 때 처치하기를 거부했으니, 그 길에도 있었어.  
당신들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죽음에 가까워졌어요!

그러자 막내가 방언으로 외쳐 어른들을 놀라게 하여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는 천사가 자기에게 말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했다.

그분은 누가 그 길을 걸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시려고 길에 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형제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악을 분별하는 예리한 감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을 제거해야 할 긴급성이나 의무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뱀이 악을 물리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치 발밑의 용처럼, 모든 마을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짓밟아 죽일 때까지 괴롭히는구나.

이 말을 듣자 두 형제는 발떡 일어나 덩불을 헤치며 뱀을 쫓아 길을 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뱀을 죽였다. 증거로 뱀의 시체를 무화과나무로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 형이 죽어 있었다.

팔꿈치를 탁자에 짚고 손가락을 깎지 낀 채, 달시쿠르는 나사로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설명했다.  
"세 형제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악을 물리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그들의 행동이 바로 그들의 형제를 죽인 악이 되었습니다. 뱀이 오직 선한 사람을 해치고 빼앗기 위해 사는 것과 같습니다."

휴건도 마찬가지로. 그는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들어라, 나사로. 너만이 뱀에게 다가가 죽일 수 있다. 네가 거부한다면 수백 명의 선량한 남녀 노소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휴건은 죽을 때까지 살인을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날아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분의 선한 군대의 종으로서, 너는 네게 주어진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악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며 지극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나를 모으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까? 오늘 이것이 당신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달시쿠르가 갑자기 그의 걱정을 달래려 다가 오자 라자루스는 콧방귀를 끼며 돌아서 버렸다.  
"아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라자루스. 이 악마, 휴곤을 처치하면 자네를 길다드의 성과 영지의 내 개인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지역을 다스릴 상당한 규모의 군대도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자네는 남은 생애 동안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자네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해낼 수 있는 일과 맞바꾸겠다. 내 말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자네가 나를 섬기는 동안 영원히 유효하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살인을 요구하시잖아요." 라자루스는 여전히 단검을 응시하며 말을 끊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두 분 사이에 공정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건 어떠세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강조했다. "달시쿠르 경, 저는 이 사람의 목숨을 뺏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귀족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칼이 옆으로 떨어졌다. "하느님을 위해서 라도!" 그는 벌떡 일어섰다. "당신은 기독교인 동료들에 대한 의무감이나 연민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나사로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부디 허락하신다면, 모세가 전한 계명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큰 죄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육체와 영혼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어찌 내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감이나 연민을 보이면서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분의 통치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달시쿠르는 경비병들을 향해 돌아서서 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혹시 내가 저주에 걸린 건가?" 그는 라자루스에게 손을 내밀며 불평했다. "그는 바로 여기, 내 성에 있다. 그 악마를 막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인데! 내 군대 전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날개 하나만으로 막을 수 있다니! 어찌하여 나는 사람을 찾는 행운을 누렸는데, 그의 신앙심이 오히려 악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다니!"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맙소사,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잃었구나!"

"이것이 읍의 시련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군사들에게 물었다. "이보다 더 큰 불길한 징조가 백성에게 닥칠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시선을 떨궜다.

달시쿠르는 탁자에 손바닥을 탁 치며 라자루스 쪽으로 몸을 기울여 투덜거렸다. "좋다. 자네 때문에 이미 유능한 병사들을 많이 잃었고, 식량과 물자도 많이 낭비했으며, 소중한 시간도 허비했네. 게다가 휴곤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잃을 여유가 없었지!"

달시쿠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손실은 모두 내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소. 어찌 되겠소, 당신들의 신의를 내 의지와 상반되게 무시할 수 있소.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당신에게 있소. 수백 명의 기독교인, 특히 여자와 아이, 노인들에게 끔찍하고도 확실한 죽음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고는 라자루스를 향해 비난하는 듯한 손가락질을 했다. "역사는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오. 이기심에 가득 찬 날아다니는 인간, 라자로 고구가 자신의 독선이라는 강력한 칼로 그들 모두를 학살했다는 것을!" 그는 탁자에서 단검을 집어 칼집에 넣으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덧붙였다. "이런 칼이라면 수천 명을 죽이기 위해 굳이 휘두를 필요도 없소!" 그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밖에서 "경비병!" 하고 외쳤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달시쿠르 경과 그의 병사들이 방을 나갔고, 라자루스는 앞으로 닥칠 의무와 그에 따른 기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규정된 기독교 비행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

성벽 밖으로는 동쪽에서 밤의 장막이 드리워졌고, 저물어가는 태양은 마지막 광선을 드리우며 나사로가 사로잡힌 이후 또 다른 저녁이 왔음을 알렸다. 하늘을 가로질러, 옅은 구름과 그 붉은 장막 사이로 황혼의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석양이 지는 저 멀리, 긴 그림자와 줄음이 쏟아지는 골짜기 위로, 달시쿠르 성 바로 서쪽, 어둑한 들판과 칠흑 같은 숲을 지나 1리그도 채 안 되는 곳에, 약 3천 명의 기병과 보병으로 이루어진 준비된 군대가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협곡의 바위투성이 바닥. 굽이굽이 이어진 길의 맨 앞에는 덩치 큰 기사가 안장에 앉아 있었다. 투구의 차양을 올린 그는 주먹과 팔뚝에 씌워진 갑옷을 고쳐 매고 있었다. 바로 보르보네즈의 위공이었다. 두 명의 기사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휴곤의 왼쪽에 있는 기사 한 명이 계곡 위쪽 굽이진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리, 그가 돌아왔습니다."

휴곤은 가파른 비탈길 아래로 말을 몰아 협곡 바닥에 엎드린 정찰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정찰병이 질주를 시작하자 휴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달시쿠르의 악마가 저 소년을 죽이지 않은 건가?" 그는 두 기사 사이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좋은 징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쪽같이 감춰진 큰 불길일 수도 있겠군." 그는 급히 다가오는 정찰병을 유심히 살피고 부하들에게 알렸다. "저 녀석이 뭔가를 몸에 지니고 있군. 대비해라." 두 기사는 칼을 짊어지고 젊은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찰병은 한 손에 천 몽치를 꼭 쥐고 갈비뼈에 바짝 붙이고 있었다.

휴곤의 오른쪽에 있던 병사가 "혹시 부상당한 건 아닐까요?" 라고 말했다.

휴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도 너무 깨끗하게 앉아 있군. 게다가 그의 말도 힘차게 달리고 있고."

"속임수에 대비하라, 아니면 악마 그 자체의 장막에 속을지도 모른다." 정찰병이 다가오자 두 기사는 투구를 내리고 칼을 뽑았다. 휴곤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정찰병은 속도를 늦췄고, 그의 말은 거칠게 바람을 불어댔다.

휴곤은 그의 늦은 도착을 지적하며 말했다. "그 성은 영국 왕국에 있지 않단다, 애야."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숨이 턱까지 차오른 정찰병이 말했다. "하인이 나이가 많아 늦게 도착했습니다. 성에서 숲 가장자리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 말해 보시오. 하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찰병은 말을 휴곤에게 더 가까이 몰고 가서 말에 몸을 기울여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각하, 점성술사의 예언이 사실입니다. 달시쿠르 경계서 날개 달린 악마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치는 가운데 아래층 복도 감옥 중 한 곳에 가두어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교님께서도..."

교황청의 권위를 빌려 그것이 기독교인 비행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공식 칙령을 발표했지만, 그 주교는 그 이후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하인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충분히 빨리 성을 공격한다면, 달시 쿠르 영주의 방어 태세는 아직 갖춰 지지 않았을 것이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주님. 성에 삼엄한 경비가 배치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농민들은 마을에 그대로 남아 아무런 걱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숲 경계선이나 그 너머에서 순찰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숲 속에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건은 정찰병 손에 들린 꾸러미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끼를 잡아다 준 거로군?"

"오! 아닙니다, 나리." 정찰병은 휴건에게 소포를 건네며 반박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나리의 방문을 환영하는 하인이 준 선물입니다. 감사의 표시이자 충성의 표시죠. 그는 나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을 챙겨 넣었고, 나리와 부하들을 위해 연회를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휴건은 포장을 손에 들고 무게를 재본 후 천을 펼쳐 얇게 썬 돼지고기를 드러냈다. 그는 고기 냄새를 맡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찰병에게 물었다. "훌륭한 음식이군."

전투 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그렇습니다, 나리. 훌륭한 요리라고 하더군요."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게다가 적의 부엌에서 직접 요리하셨군요." 그는 휴건의 두 기사에게서 함께 웃는 기색을 찾으려 했지만, 차가운 시선만 마주칠 뿐이었다. 그들은 칼을 거두었다.

휴건은 소년에게 "네 말대로, 적의 음식이로군." 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천을 다시 접어 소년에게 던져주며 "마음껏 드셔."라고 말했다.

소년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리?"

"당신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이 선량한 종을 잘 아십니다. 직접 그를 보고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눈도 똑바로 들여다보셨잖아요.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그 선물은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여행 내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

"예, 나리."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전투 전에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겠다. 먹어라!"

휴건의 오른쪽에 있던 기사가 불평했다. "저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나리. 나리의 모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휴건의 왼쪽에 있던 병사가 다른 병사의 말에 반박하며 말했다. "만약 그 아이가 영주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했다면, 지금쯤 고기를 씹고 있겠죠?"

"그래." 휴건이 동의했다. "고기를 마음껏 먹어라, 애야! 배불리 먹어라."

오른쪽에 있던 기사는 눈을 굴리며 돌아서 버렸고, 왼쪽에 있던 기사는 정찰병을 보고 킁킁거리며 웃었다. 젊은이는 천을 펼치고는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헌금.

휴건은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을 바라보며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함께" 그리스도, 그분의 성하, 그리고 나의 훌륭한 점성술사, 그의 달의 판과 함께 운명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는 기사들에게 돌아섰다. "달시쿠르의 영지가 내 깃발 아래 통합 되면, 두 지역은 하나의 거대한 속주가 되어 오직 신의 뜻에 따라 프랑스를 수호하는 데 있어 신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흔들림 없는 세력이 될 것이다." 위공은 말을 몰고 석양을 향해 나아가 군대를 사열하고 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오른쪽에 서서 말했다. "탄약 수레가 신속하게 진격할 수 있도록 확실히 고정시켜 두시오. 달시쿠르의 궁수들이 성벽 위에 올라 오기 전에 공성 수레들을 일렬로 배치해 두시오. 동시에 공성추도 제자리에 놓아 두시오."

그러자 그는 왼쪽에 있는 기사에게 명령했다. "자네는 부하들을 이끌고 마을을 소탕하여 농민들을 성 쪽으로 몰아내되, 달시쿠르의 궁수들이 사정거리 안에 있도록 하라. 동시에 가장 정예한 병사들 중 일부는 성문을 부수는 것을 지원하라. 자, 이제 전열에 진격을 알리도록 하라."

휴곤의 두 부하 대장이 그의 곁에서 도망치자, 그는 말을 돌려 정찰병을 살펴보았다. 정찰병은 고기를 한 움큼 물고 힘겹게 먹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튕기고 손을 흔들었다.

젊은이는 그의 지시에 따라 천을 다시 접어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휴곤은 그 꾸러미를 안장 가방에 넣고 병사를 돌려보냈다. "대열에 합류하거라, 젊은이."

정찰병은 고삐를 당겨 말을 몰아 달아났다.

이제 홀로 남았지만, 뒤에는 군대가 있는 위공은 어두운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악행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달시쿠르. 네 주위에 악마가 있다 해도, 나는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신이 네 영혼을 거두어 가듯이 말이다." 그는 말 옆으로 몸을 기울여 콧구멍을 깨끗이 풀고 다시 안장에 앉았다. 그렇게 마른 강바닥의 뿌리로 뒤덮인 벽 사이에서 위공 경의 군대는 진군 준비를 마쳤다. 짐승들은 콧김을 뿜고 병사들은 명령을 외쳤으며, 갑옷과 무기가 부딪히는 끊임없는 소음과 저녁 곤충들의 날카로운 울림이 뒤섞였다.

~\*~

마치 저녁 먹이를 쫓아내는 거미처럼, 시간은 저물어가는 하늘을 어둠의 고치 속으로 말아 넣었다가, 변형된 하늘을 또 다른 새벽의 찬란함으로 펼쳐낸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자 길고 어렴풋한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고, 방어 시설이 드문드문 한 달시쿠르 성벽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성 내부 깊은 곳에는

돌로 지어진 요새는 투박한 문 너머로 봉쇄되었고, 나사로는 그곳의 중요한 손님이자 감시받는 죄수로 남아 있었다.

엘조는 죽은 쥐를 봤던 방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을 쓸어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희미한 먼지와 와인 냄새만 맡을 수 있었다. 그는 당황한 듯 서서 방의 다른 구석들을 둘러 보았다. 혹시 자신이 모르고 쥐 사체를 다른 곳에서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지만, 그곳들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턱을 굳게 다물고 이상한 기억에 대해 생각했다. 죽은 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라자루스를 진정으로 괴롭힌 것은, 그가 기억하는 현실 인식이 진실과 어긋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수도원 지하 묘지에서 보낸 모든 날 동안, 그는 항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감지해 왔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는 실재하는 것이었고, 시야 한쪽 구석에서 움직임이 보이면 그것은 빛과 그림자의 변화로 인해 움직임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가 선이나 악의 존재를 감지하면, 항상 근처에 있는 기사나 뒤이은 계시가 그 느낌을 정당화해 주었다. 그리고 그의 기억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며, 모든 단어와 예시를 기억해내는 그의 능력은 이를 확실히 뒷받침했다.

모든 책, 모든 필사실의 모든 것—”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테이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죽은 쥐의 미스터리를 떨쳐버리고 머리 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는 낡은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밖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소리가 들려왔다. 문의 금속 걸쇠가 잠기자 같은 빨래하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검은 천이 그녀의 팔에 걸쳐져 있었다.

라자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같은 반가운 표정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을 펼쳐 들고 그에게 딱 맞는 검은 셔츠를 내밀었다. "이 셔츠가 쓸모가 있더라도, 이게 더 잘 어울릴 거예요." 그녀는 그를 쏘아보며 덧붙였다.

"하얀 셔츠에 와인 얼룩이 묻어서 망쳤네."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셔츠를 휘 들어 올리고는 활짝 열어 보였다. "그럼 입어볼까?"

"아, 네." 라자로는 그녀가 옷을 입혀주는 동안 셔츠에 등을 기대며 대답했다. 그는 "아마 제가 다른 셔츠를 빨아도 될 것 같습니다. 포도주 얼룩이 묻은 옷은 많이 빨아봤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럼 이 옷은 무슨 색이었나요?" 그녀는 거만하게 물었다.

"대부분 갈색 계열이었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흰색이 아니었어요. 흰색은 용서하지 않죠. 이제 목 부터 발끝 까지 검은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포도주나 악덕, 서투름, 그 밖의 방탕함으로 더럽혀지는 얼룩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녀는 셔츠를 그의 날개에 꼭 맞게 입히고, 그를 돌려세운 다음,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는 데 열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손에 고정했다. 라자로는 그녀의 입술을 반복해서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면서 손가락이 둔해지면 누구나 그렇듯, 단추를 채울 때마다 입술을 오므리는 버릇이 있다.

침울한 표정의 라자로스는 시선을 돌렸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셔츠에 얼룩을 묻히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얼룩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는 급히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나처럼 늙고 어리석은 과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팔을 내밀어 보세요."

라자로가 팔을 뻗자 그녀는 그의 소매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는 물었다. "부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을 실망시켰습니까? 제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비웃으며 눈을 굴리고는 그의 다른 소매단을 바로잡는 데에만 집중했다.

라자로는 그녀의 손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그녀의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잠시 동안, 그들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라자루스는 그녀의 눈빛에서 고통을 읽었다.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서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라자루스 님."

나사로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셔츠 때문이 아니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당신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제가 당신 일에 간섭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녀는 잠시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귀족처럼 목욕도 하고, 왕처럼 잔치도 즐겼으며, 이제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군요. 게다가 모든 면에서 예의 바르고, 옹고 그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더욱이 건강도 좋으니 오래도록 풍요롭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오직 당신 자신과 신에게만 얽매일 뿐이죠. 이 모든 공덕과 축복 덕분에, 이제 당신은 주인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곳을 떠나 멀리 날아가 이 고통스러운 곳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나사로는 순식간에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다. "그가 나를 풀어주기로 했다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숙하게 말했다. "그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영주님은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분이세요. 설령 그런 미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까지 말이죠."

라자로의 미소가 사라졌다. "저는 그저 ... 그가 제게 부탁했던 것을 ... 아마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

"나사로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오?"

그녀는 씩씩거리며 허리에 손을 얹고 고개를 세차게 돌리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저는 달시 쿠르 도련님과 그의 일행을 모시는 시녀로 일했습니다."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심지어 사건이 전개되는 순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가 지금까지 그의 집에 초대했던 그 어떤 귀빈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극진한 예의를 당신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심지어 그 구두까지도 당신 발에 신은 신발은 그의 아버지 것이었고,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도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당신께는 자신이 한 번도 요구해 본 적 없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도록 고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잔치는 다름 아닌 프랑스 국왕 폐하께 어울리는 연회였죠. 그리고 오늘, 제가 그를 알현하려 애쓰며 방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을 때, 당신 이 휴건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신념.”

그가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말을 끊었다. "라자루스 도련님, 저는 오늘 제 평생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주인님께서 사랑하는 달시쿠르 부인과 그녀의 형제들이 길 다르 성에서 휴곤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날, 그분이 지으셨던 잊을 수 없는 고통의 표정입니다.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라자루스 도련님?"

라자루스가 말을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가 우는 동안 나는 그를 안아줬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그녀는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보세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운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저는 그의 마음을 알아요. 그는 우리를 위해, 그가 지켜줄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 울었어요. 그는 휴건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면서도 막을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다가가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흐느꼈다.

라자루스는 이제 그녀 위에 서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돌아서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녀의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문은 여인의 울부짖음에도 열리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벽을 훑어보았다. 마치 벽에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을, 그녀를 위로할 적절한 말,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킬 말을 찾으려는 듯. 마치 그녀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억눌린 고통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우는 것 같았다. 그녀의 슬픔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는 마치 칼이 가슴을 더 깊이 찔러 그의 심장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의 안에서는 감정이 요동쳤다. 고통, 분노, 슬픔이 깊고 터진 그릇에서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라자루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슬퍼하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바라던 다음 눈물은 그녀의 팔이 아닌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방울이 더.

처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마치 에덴동산에까지 비가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사로는 입술을 깨물고 그 여인의 죽은 가족들을 위해 울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슬퍼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울었다. 달시쿠르와 그의 백성들이 휴건으로부터 구원받을 희망이 거의 없었기에 그들을 위해 울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자신을 위해 울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고뇌와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탁자 위에 손을 내리쳤고, 여자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사로 스승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자는 마음을 추스르며 간청했다.

나사로는 황급히 얼굴을 닦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분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달시쿠르 경과의 또 다른 알현.

“오, 하느님—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사로에게 달려들어 너무나 기뻐하며 그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놓아주고 뺨을 닦아주었다. 활짝 웃으며 그녀는 말했다. “지금 당장 주인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주인님께서도 몹시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려 다 그의 팔을 잡았다. “아! 라자루스 님,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라자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를 알아차리지도 않았다. 그는 묵묵히 조잡한 문을 응시했다.

여자는 그의 시선을 따라 문 쪽으로 갔다. “나사루스 선생님?” 그녀는 다시 그를 향해 돌아섰다.

“무엇이 들어가나요?”

라자로는 입구에서 눈을 떴고 물었다. “두 뿔은 무슨 뜻인가?”

그녀는 문에 뿔 같은 것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뒤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뿔이 없어요, 주인님—”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가 성의 아래층 복도를 가득 채웠고, 라자로는 문 쪽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제 세 번째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군.”

그녀는 입을 가렸다. 여자는 그저 나사로를 응시하며 눈빛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나사로는 그녀의 공포를 임박한 파멸의 공포로 보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안색은 예전 셔츠 색깔처럼 창백했고, 마치 형체 없는 유령처럼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마치 속으로 죽어가는 듯 보였다.

눈동자 색깔만은 변하지 않았는데, 흰자위가 진홍색으로 물들고 눈물이 가득 고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물었다.

그가 그녀를 진정시키기도 전에,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열어! 문 열어!”

라자로는 여자에게 다가가면서 경비병들이 발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 “무슨 일이지?”

“휴건이다!” 그녀는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경비병들, 당장 문 잠금장치를 풀어!”

라자로가 그녀 옆으로 다가갔고, 그의 주먹이 문을 광황 두드리자 문이 문틀에 부딪히며 떨렸다.

문이 활짝 열리자 전투 태세를 갖춘 병사들이 나타났다. 라자로는 그들을 알아보았다.

리드— 온몸이 붉은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거구의 군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나사로를 붙잡았다. “어서 오세요! 서둘러요!”

그녀는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사납게 속삭였다. "당신의 날개로 성 꼭대기 창문을 통해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붉은 머리의 병사가 앞으로 나서서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여자의 손을 라자루스에게서 떼어내며 말했다. "날아다니는 남자는 여기 남으세요. 당신은 가세요." 그리고 경비병 두 명을 불렀다. "여자를 내성으로 데려가. 부상자들을 돌봐야 해."

“잠깐! 안 돼!” 그녀는 두 경비병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항의했다. “그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손을 떼!” 그녀가 저항하며 소리치는 동안 그들은 그녀를 문 쪽으로 끌고 갔다.

“그는 휴곤을 죽이기로 동의했어! 그를 놓아줘—나를 내버려 둬!”

붉은 거인은 라자로를 막아서며 그의 가슴에 손을 단단히 얹고 여자의 울부짖음 너머로 소리쳤다. "그를 보호 없이 보낼 순 없어!" 그는 호위병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어서!"

"그녀와 함께!" 그는 나사로에게 단검을 뽑아 들고 투덜거렸다. "너도 사라져라!"

라자루스는 방 안쪽으로 더 깊숙이 물러났고, 거구의 남자는 입구 쪽으로 물러나며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날아다니는 놈을 안에 가두고 이 문을 지키자."

멀리서 들려오는 여러 비명 소리에 묻혀 여인의 울부짖음이 희미해지자, 라자로는 탁자에 기대어 붉은 머리의 남자가 병사들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남자가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그는 좁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라자로에게 “당신은 휴곤을 죽이기로 동의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라자로는 턱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라자루스의 부츠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휴곤은 스스로를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고 칭송하지만, 우리는 그의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악마처럼 보이는데도 우리를 위해 그 잔혹한 자를 죽이려 하다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누가 살아남아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내 결정권이 있다면, 자네에게 내 칼을 주고 보내주겠네." 그리고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기에, 자네를 내 힘으로 붙잡거나 풀어줄 수 있겠나? 내 손은 묶여 있네. 나는 그저 칼 뒤에 있는 사람일 뿐이요." 병사는 자리를 떠나 라자로를 허름한 문 뒤에 가두었고, 엘조는 산 채로 매장되어 그의 정체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신의 끔찍한 운명을 떠올렸다.

나사로는 탁자 위에 팔짱을 끼고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시련을 곰곰이 생각하며, 부활의 진정한 원인과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가난한 분도 마지막 날들에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셨을지도 몰라.'

그는 촛대의 윤이 나는 황동 받침대를 마치 자신의 모습이 비친 것처럼 응시했다.

그는 그를 돌아보았다.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이목구비를 살펴보았다. 마치 전설을 왜곡하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표면은 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눈에 띄게 잘생긴 남자의 모든 면모를 갖춘 모습이었다. 커다란 귀나 개 이빨, 혹은 그의 진짜 모습인 엘조의 익숙한 특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보십시오.” 라자로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말입니다.”

그는 씩씩하게 웃으며 탁자를 탁탁 내리치고는 문과 경비병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난 꿈쩍 못 하지!" "여기 봐." 그는 촛대를 가리키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난 너희들과 똑같아. 그러니 날 풀어줘도 돼. 난 더 이상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반응을 기다렸다. 땀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방어 태세를 갖춘 병사들의 목소리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라자루스의 가짜 미소가 사라졌다.

밖에서 한 군인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문을 지키고 있다"라고 외쳤다.

나사로는 병사의 명령에 맞서 "그럼 붙잡으십시오. 하지만 공개적으로 붙잡으십시오!"라고 외쳤다.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병사는 그를 무시하는 듯 보였고, 아마도 전투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사로는 거짓된 거울을 향해 불평했다. "그들은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음으로써 나를 보호하려는 건가?" 그는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한숨을 쉬며 눈물을 닦았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쿵쿵쿵—" 그리고 꾸준한 두드리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깊고 울려 퍼지는 소리는 마치 온 세상의 거대하고 멈추지 않는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고, 그 울림은 방 안의 모든 돌 표면을 통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라자로는 마치 조각상처럼 앉아 촛대의 소용돌이치는 불꽃을 응시했다. 그의 귀는 쫓겨 세워졌고, 멀리서 들려오지만 점점 커지는 살인과 혼란의 외침과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성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죽음의 소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한때 알아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외침이 분명한 단어로, 결연한 전쟁터에 선 사람들의 이름과 무기를 들라는 외침으로 변해 갈수록, 라자로는 그저 앉아서 듣고, 추측하고, 휴건의 손아귀 아래 놓인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할 수 밖에 없었다. "아버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모든 것과 떨어져서..."

낡고 해진 세계 지도 한 장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책이나 원고도 없었다. 어쩌면 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수도원보다도 이 사악한 곳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불길 속으로 쓰러졌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

언제나처럼 휴곤의 부하들은 달시쿠르의 문지기들을 제압하고 새로운 병력으로 교체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진심 어린 마지막 말까지도요.

기도하는 동안 휴곤의 궁수들이 그 자리에 서 있던 적군 전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휴곤의 부하들에게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명령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시체를 옮기고 문을 지키라는 지시였다. 새로 교체된 경비병들이 서로 속삭이는 불안한 대화도 들었다. 날아다니는 악마, 끔찍한 괴물, 대역병, 불길한 징조, 악의 계시, 그리고 소문으로만 듣던 예언들. 사실, 라자로는 그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그는 촛대를 노려보았다. 촛불들이 하나씩 꺼져갔다. 마지막 심지의 불빛 아래에서, 그는 아주 다르고 기괴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촛대의 황동 받침대의 굽은 각도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그는 마치 개의 튀어나온 주둥이처럼 보이는 길쭉한 얼굴과 뾰족한 귀를 가진 짐승 같은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새롭게 왜곡된 자신의 모습을 떨쳐낸 후, 여전히 경비병들이 속삭이고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소리가 들리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탁자에서 일어나 촛대를 움켜쥐고 투박한 문에 내던졌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날아다니는 악마가 아니야! 나는 괴물도 아니라고! 나는 —"

그는 숨을 헐떡이며 뛰쳐나와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형제를 죽인 자가 아니라면 누가 진정한 괴물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형처럼 같은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나를 여기 가두기 위해서? 아 니, 너희들이 괴물이다! 너희들이 악마다! 너희들이야말로 모든 것의 재앙이다!"

**옳고 선한! 너는 바로 역병이로구나!**

그와 경비병들 사이에는 불과 몇 인치의 나무판자만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발소리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깊은 한숨.**

압도적인 평화감이 라자로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분히 탁자를 돌아 짚 더미 침대로 향하며 투덜거렸다. "어쩌면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일지도 모르겠군." 그는 짚 매트리스 위에 무릎 꿇고 나라신의 운명을 생각했다. "세상은 그들의 것이다. 날아다니는 자가 설 자리는 없다 "

나사로는 옆드려 꿈의 세계만을 찾았다.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인간 세상 이라는 악몽을 다시는 마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진정으로 그는 낮조차 밤처럼 어두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갈망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저 무언가,

그로테스크 ~ 고딕 서사시 (저자: GE 그레이븐) || 제15장 ||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https://www.gothicnovel.org> 모든 권리 보유 (c)1998 - 미국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공허의 왕국. 그곳은 창조 의 어수선한 다락방과 같았고 , 불행하고 버려진 모든 생명체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파리채에 잡힌 파리, 그물에 걸린 물고기, 도살된 어린 양, 그리고 어찌면 날아다니는 괴물들까지도.

[제15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오직 헌정 의 의미 로 창작 되었습니다.

##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